침체 예상속 양서로 돌파

전망 '99 불교출판계

올해 교계 출판계의 기상도는 '먹구름'이다. 경기침체와 함께 지난해 말 터져나온 조계종 사태로 인해 독자들의 구매욕이 바닥을 헤매고 있기 때문. 상반기가 지나면서부터 조금씩 나아지리라는 기대섞인 전망도 있지만 전반적인 침체를 벗어나기는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각 출판사들도 이같은 상황을 예견하고, 공격적인 경영보다는 지난해와 수준을 맞추면서 내실을 다지는 기간으로 삼겠다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하지만 좋은 책으로 어려움을 뚫어 보겠다는 속내를 굳이 감추지는 않는다.

교계 출판사들은 지난해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올 출판계획을 잡고 있으면서도 나름대로 양서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일 태세다. 민족사의 경우 지난해와 같은 20여종의 책을 출간키로 계획을 세워놓았다. 특히 하반기에는 '고승평전' 시리즈를 펴내기 시작하고, '신행총서' 시리즈도 상황을 고려해 발간을 결정할 방침이다.

여시아문도 '주머니속 대장경' 시리즈 6종과 〈원각경 강의〉(이제열 법사) 등 지난해와 비슷한 10여종을 펴낼 예정이다. '주머니속 대장경' 시리즈의 경우 알찬 양서로 자리매김시킬 계획이고, 일반인들에게도 폭넓게 읽힐 수 있는 〈라다크 구도기〉를 통해 일반 출판시장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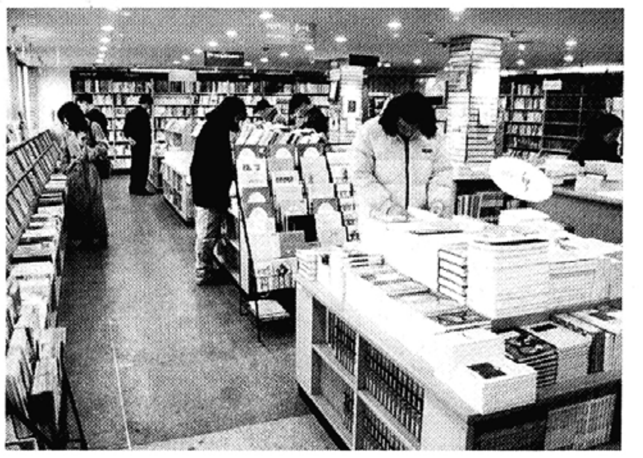
대원정사는 1월중 현대불교신문에서 연재됐던 고은 시인의 소설 〈수미산〉을 두 권으로 묶어 출간하는 등 6~7종의 출간을 계획하고 있으며, 불광 역시 〈청소년 포교지침서〉(성일스님) 등 10종의 책을 펴낼 예정이다. 시공사도 마찬가지로 〈정선 아함경〉(이연숙) 등 7~8종을 발간할 계획이다.

운주사는 '불교와 동양전통사상 비교' 시리즈 등 지난해보다 3종 정도 늘어난 10종의 책을 출간할 예정이며, 불교시대사 역시 지난해보다 다소 늘어난 20여종의 책을 계획하고 있다. 우리출판사는 건강·명상 서적 등 20여종을 올해 출판계획으로 잡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 관련 도서도 2종 정도 펴낼 생각이다.

그러나 이같은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각 출판사들도 장담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조계종 사태로 상처받은 불심들이 오히려 불서를 통해 위로받으려할 가능성도 있다는 역설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물론 경기 회복조짐도 한몫 할 것이라는 기대다.

또 '독자들은 언제든 양서를 찾게 돼있다'는 출판가 정설이 그대로 실현된다면 그리 비관적이지만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이는 좋은 책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과 애정이 지속된다는 전제하에서다. 결국 올해 교계 출판계는 각 출판사들의 노력과 불자들의 관심이 얼마나 조화를 이루느냐가 사실상 최대 변수인 셈이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불서에 대한 불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은 불교의 바른이해를 통한 개인의 신행생활에 도움을 줄뿐아니라 불교 출판문화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다.

관심끄는 올해의 불서

민족사
하반기부터 20권예정으로 '고승평전' 시리즈를 펴낼 계획이다. 원효, 경허, 만공스님 등 우리 불교사에 뛰어난 족적을 남긴 스님들을 재조명한다.

여시아문
5월을 전후해 펴낼 〈라다크 구도기〉는 불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양서로 읽힐만한 책이다. 인도에서 태어난 영국 시인 앤드류 하비의 구도기인 이 책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불교시대사
'불교의 수용과 변화' 시리즈는 인도, 동남아, 티벳·네팔, 중국, 한국, 일본 편 등 전6권으로 구성된다. 학술서이자만 쉽게 설명해 누구라도 읽기 편하도록 할 것이다.

불광
상반기중 나올 김기추 거사의 〈유마경 강의〉는 〈유마경〉 뿐만 아니라 김기추 거사의 불교사상을 깊이 이해하는데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운주사
〈불교와 유교〉 〈불교와 현학〉 등 불교와 동양전통사상을 비교하는 내용의 시리즈를 전6권으로 상반기 중에 선보일 예정이다. 불교와 동양사상의 접목으로 불교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시공사
4월중 펴낼 〈정선 아함경〉은 9백여쪽의 방대한 분량으로 부처님의 생애·삼보·열반 등을 주제별로 뽑아 읽기 쉽게 엮을 것이다. 〈아함경〉과 불교를 체계적으로 알 수 있는 책이다.

화제의 책

초보자를 위한 불교 — 도후스님 지음

교리·사찰예절 등 초심자 길잡이

'맹구우목(盲龜遇木)'. 불법을 만나기란 눈먼 거북이가 바다에 떠다니는 나무판자를 만나는 것만큼 어렵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고사성어다. 하지만 불법을 만나더라도 그 요체를 바르게 아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 첫발을 잘못 디딘 탓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초보자를 위한 불교〉는 불교를 처음 만난 초보자들에게는 안성맞춤인 입문서. 교리 및 사찰예절과 의식, 선 등 불교에 대한 기초지식과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 세계불교의 역사와 현황, 한국불교의 역사와 명찰 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놓았다. 궁금해 할만한 것들은 문답식으로 풀이했으며, 중요한 용어도 풀이해 실었다. 〈불교시대사, 7천원〉

불교와 환경 — 법륜스님 지음

환경문제 해결책 불교서 찾아

환경문제는 단순히 공기와 물이 오염되는 자연현상이 아니라 인간사회 내부에 축적된 모순들이 밖으로 드러난 문제이자 현대문명의 문제다.

이 책은 환경문제를 서로 연관되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자신만의 삶을 위해 자연을 파괴한 과보로 본다. 그리고 불교의 가르침에서 그 해결책을 모색한다. 인간에 의해 파괴된 자연환경을 복구하는 일은 자연과 인간이 일체라는 관점에서만 가능함을 보여준다.

불교가 환경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사상이라는데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접근 방법이 있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는 책이다. 〈정토출판, 5천원〉

한국불교총람 CD롬 발간

〈한국불교총람〉을 CD-ROM으로 볼 수 있게 됐다.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서돈각)은 총 1천1백여쪽에 달하는 〈한국불교총람〉의 내용을 담은 CD-ROM을 4일 발행했다.

98년 6월 발행된 개정판의 내용을 그대로 담은 이 CD-ROM은 초기화면에 종단, 법인, 단체/기관, 사찰, 인명 등의 항목을 설정해 놓고 원하는 부분을 클릭하면 가나다순의 목차로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목차별 검색기능을 갖추고 있다. 또 명칭, 주소, 소속 등의 항목 중 찾고자 하는 단어의 일부를 입력해 일괄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함께 내장돼 있다.

조계종 등 50개 불교종단에 대해서는 총무원, 종지, 소의경전, 주요사업, 산하단체, 교세 등을 정리해 놓았으며, 1백50여 불교관련 각종 법인의 설립목적과 주요연혁 등 각 특성에 따른 역사와 현황을 실었다. 총 5천여 불교관련 단체에 대해서는 신행/포교, 청년/학생, 교육/연수, 사회/복지, 언론/출판, 학술/문화 등 성격별로 분류해 그 특성에 따라 원하는 자료를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국내 1만3천여 사찰은 도별 분류 및 소속종단, 소장문화재 등을 명기해 놓았다. 값 6만원.

'존재의 의미' 詩로 기록

임완숙 시집 '바다에 내리는 비'

조계종 전국교사불자연합 회장인 임완숙 시인(이화여고 교사)의 시집 〈바다에 내리는 비〉(오감도 刊)는 존재의 의미에 대한 성찰의 기록이다. 기계 문명의 노예가 된 현대인을 인간성 회복의 장(場)으로 나아가게 하며, 공(空)의 공간에서 소멸과 생성으로 윤회하는 존재를 바라보게 한다.

'눈 비비는 봄/일찍이/잔설의 틈 비집고 일어나/…/삶의 마지막 끈/툭툭 털며 춤추는 민들레/슬프도록 흥겨운 잔치 한마당'(시 '민들레를 노래함'의 일부)

민들레와 눈은 언제나 순환의 과정에 놓여 있을 뿐 완전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공(空)의 공간에서의 윤회. 시인에게 있어서 소멸은 영원한 존재의 전체에 속할 뿐이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 순수로 지향해 가려는 시인의 의지가 드러난다.

'반가사유상' 등 몇 편의 시는 영역을 해 놓았다. 시어머니 고옥남씨(79·전 숙명여대 영문과 교수)가 며느리의 불심을 고스란히 옮겼다.

임완숙시인은 71년 '시세계' 신인문학상으로 등단했다. 값 5천원

한명우 기자

새로나온 책

▲멀리 가지 않고 꿈꾸기=탈 현실의 충동이 시 세계 저변에 깔린 최미순 시인의 두번째 시집. "세상 속에 섞여 잘 흐르지 못하기" 때문에 시적 자아는 끝없이 세상 바깥을 떠돈다. 그것은 대체로 여행의 형태를 띤다. 세상과 오랫동안 불화하고 있는 시인은 "세상 밖으로 세상을 지나 세상 속으로 가는 길"을 꿈꾼다. 그리고 그 길은 해탈의 길과 겹쳐져 있음을 보여준다. 〈불일, 5천원〉

▲쿤달리니 탄트라=이 책은 요가가 인간의 의식 성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철학, 사회·문화적 구조, 과학적 입장에서 다차원적으로 다루고 있다. 쿤달리니란 산스크리트어로 '잠재된 상태에 있는 힘'을, 탄트라는 '확장'의 의미다. 저자는 요가와 탄트라의 현대화에 힘썼던 스와미 사티아난다 사라스와티.〈양문, 1만5천원〉

▲신 토정비결=한자문화의 영향으로 어렵게 구성돼 있는 토정비결을 현대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책. 하지만 토정비결은 운명의 노예가 아닌 미래에 대비하고 그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욕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저자는 한국 역술인협회 중앙회장 백광씨. 〈관음출판사, 7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산에는 꽃이피네	법 정	동쪽나라
2	참선요지	대 성	여시아문
3	산은 산 물은 물	정 찬 주	민 음 사
4	한국불교 기도성지	정성운외	불교시대사
5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6	자기를 바로 봅시다	성 철	장 경 각
7	영험도량에서 소원성취한 이야기	진 현 종	대원미디어
8	불교신행의 주춧돌	우 룡	효 림
9	있는 그대로	마하리쉬	한 문 화
10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했다	홍 사 성	장 승

구입문의:(02)737-0695

염불 禪 주말 수련회 (토요일 저녁9시 일요일 아침7시)

와서 보라! 수행비전의 완벽한 테크닉을!

● 목탁치지 않고 자성의 운률에 맞춰 힘차고 박력있게 경쾌하고 신명나게 재미있고 리드미컬하게 행주좌와 동정간에 자동으로 염불되고 단전호흡되는 한국불교 전래이래 처음 공개되는 염불禪 수행법
● 큰소리로 장시간 염불해도 절대 목이 아프거나 쉬지않고 오히려 목소리가 트이며 말더듬, 실어증이 극복되고 가슴이 탁트여 시원해지며 피로감을 모르는 용맹정진시 용이한 수행법
● 염불 수행시 혀가 이완되어 입천장을 탁탁치면 대뇌가 각성되어 또렷또렷해지며 졸음과 혼침이 극복되고 침은 저절로 넘어가며 중단전의 맺힌 기가 풀리며 스트레스는 저절로 해소되고 올곧은 자세가 계속 이어진다.

♣ 근심 걱정의 악업이 가슴에 맺힌 한이, 병고액난의 괴로움이 번개처럼 녹아내리고 문제해결의 지혜가 순간 떠오르며 간절한 소원은 즉각이루는 기도 수행시 가장 용이한 염불법이다.

● 독경을 잘하려면 세로쓰기 한글 경전을 한줄씩 읽고 왼손가락을 하나씩 헤아리면 오른뇌의 직관이 열리며 집중력 기억력 좋아지고 번뇌망상의 잡념이 현저히 줄어들고 또렷또렷하고 정신맑은 상태로 독경삼매 이른다.

※ 호흡에 맞춰 절하는 법
들숨과 날숨과 숫자를 절 동작에 대입하면 자동단전호흡되고 또렷하게 숫자가 헤아려지며 삼천배를 하여도 절대 숨차거나 헐덕대지 않고 몸살나지 않으며 힘들지 않는 가장 진보된 수행법이며 최고의 건강법이다.

● 시중의 단전호흡은 부처님 호흡법이 아니며 수련을 잘못하거나 몸에 맞지 않으면 멍치 아프고, 옆구리 결리고, 혈압 오르며, 머리 무겁고, 위장 병 생기며 얼굴 노래지다 검어지며 병이 되니 돈낭비, 시간낭비 하지말고 언제나 어디서나 저절로 단전호흡되고 기도되는 염불禪으로 불자답게 수행하십시오.

● 수행내용 : 한글금강경 봉독, 석가모니불 염불정근, 참선, 와선, 행선, 호흡에 맞춰 108배, 도인건강법, 축원기도 7회
● 예약수련 30명, 넉넉한 복장, 초심자 기본수행법교육(7시~8시)
● 불자기업 오스트세이빙테크(주)에서 수련회비 일체를 후원

아름다운 소리산 물빛고운 소금강 법왕정사 수행원
금강지혜보궁, 두타禪院, 불교도서관, 법왕장학회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인이피 마을) 소리산 참선캠프
수행전문상담전화 (0338)771-7745 (오후 1시~8시)
금강산처럼 수려한 소리산 16만평의 영지에 위치한 청정한 수행전문도량임.

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통신과정 - 수시입학
-학력, 연령 제한없음
-교리를 배우고자 하는 모든 분, 불자가 아니라도 관계없음
※교재+테이프" 집에 앉아서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정규과정
3월 8·9일 주·야간반
(선착순 3,000명)
■ 일반 강의: 우학스님
·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의 저자이며 주지스님
■ 특별 강의:
박삼중 스님,
인환 스님 등 큰 스님
☞문의는 영남불교대학
053)474-8228

애독자 사은 생활 기공지도
독자 여러분의 요청에 부응하여 다음과 같은 수련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생활 기공 지도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 내 용 ·
가. 변성의식 상태수련
「보이지 않는 것을 과학한다」
도서출판 물병자리 박희준 옮김 참조
나. 공기공과 원극공
「고차원 치료 능력자들의 세계」
도서출판 단. 박희준 지음 참조
다. 정심조식법(正心調息法)
(소망성취에 도움이 되는 염력 개발 특수 호흡법·국내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임)
라. 오라 충전법 기타.
· 일시와 장소 ·
가. 일 시 : 1999년 1월부터 수시접수
나. 장 소 : 한국레이키요법 연구학회 교실
(전화 02)720-5682/ 725-2311)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 피어선 B/D 809호
다. 지도자 :
번역저술가·레이키 마스터·티처 박희준
※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외는 별도로 레이키법도 전수합니다.

뜻대로 사는 길 아·봐·타
Avatar.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바랍니까?
꼭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습니까?
'나'가 누구이며,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깨달음이 당신의 소원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아봐타를 경험하세요!
● 아봐타는 신념이 경험에 우선한다는 일체유심조의 원리에 기초한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의식개발프로그램으로 현재 61개국, 14개 언어로 전수되고 있다.
● 아봐타는 자신의 생각과 신념체계를 자유자재로 관리하여,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되어 원치않은 삶의 부분은 소멸하고, 원하는 삶만을 창조해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한다.
● 아봐타 코스는 종교색이라곤 전혀없이 불자는 물론 일반인들로부터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수행법으로 구도의 길을 열어가고 있다.
● 아봐타 코스는 불교 심리학을 실용화했으며 참선 수행등을 좀 더 보편화하여 평소 안고 있던 화두를 참구하는데 느낌을 보태어 깨달음을 점수케 한다.
"아봐타 코스는 길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다. 그러면서도 이 코스는 인간의식에 믿기지 않을 정도로 큰 해탈을 이루게 하는 힘을 넣어준다."
아봐타는 당신이 찾던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당신을 찾아갑니다. 아봐타의 이름으로..
- 아봐타코스는 7~9일이 걸리며 비용은 160만원입니다.
- 영축 아봐타센터에서는 매월 첫째 목요일 오전 9시에 코스를 시작합니다.
- 아봐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전화주십시오.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영축 아봐타 센터 0523)381-1143 011)882-1149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474(통도사 근처)